“한국불교 중흥” 30만 불자 정성 모았다

조계종 백만원력결집 1주년… 110억 원 모연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 등
5대 목적 사업 추진 계획
9일 회의서 종단불사 포함
발우저금통 2차 제작 예정
“대중들 릴레이 동참 감동”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불교 중흥을 견인할 조계종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시작된지 꼭 1년을 맞았다. 1년간 국내외 불자 30만명의 원력과 정성으로 110억여 원이 모연됐다. 순수 모연을 통해 단기간 조성된 기금으로는 유례없는 수치다. 한국불교 미래를 향한 불자들의 간절한 서원이 그 토대이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백만원력결집위원회(위원장 금곡)는 4월 13일 백만원력결집불사의 1년 성과를 발표했다. 2019년 4월 19일 ‘백만원력결집을 위한 모연선포식’ 이후 올해 3월 31일까지, 정기후원(CMS)과 전화(ARS), 지로, 계좌이체(저금통) 등 여러 가지 모연방법을 통해 집계된 금액은 110억 90만원에 달한다. 통도사가 기증한 인도 부다가야 현지 토지를 금액으로 환산한 3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80억여 원이 순수 보시금인 셈이다. 약정형태로 동참한 불자들이 상당수인 만큼, 잔여약정금도 15억여 원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처음 총무원장 스님의 원력으로 백만원력결집불사를 시작할 때,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간절한 서원은 있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진심으로 세운 원력은 또 다른 원력으로 이어져 천진불부터 노보살까지 십시일반 원력이 차곡차곡 쌓였다. 불교의 미래를 위해 정성으로 동참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 △계룡대 호국사 영외법당 건립 △불교 요양병원 · 요양원 건립 △나눔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불사는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불사와 계룡대 호국사 영외법당 건립불사 두 건이다. 인도 분황사는 올 3월 예정된 기공식이 코로나 19사태로 연기되면서 올 9월 법회형태로 봉행될 예정이며, 계룡대 호국사 영외법당 역시 착공식을 앞두고 있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던 마애부처님 입불(入佛) 불사는 문화재청 허가 및 경주시와의 합의, 구체적인 입불 방법연구 등 산적한 과제가 남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예경의 대상으로서 원력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부터 전국 불자들이 마애부처님을 참배하고 예불할 수 있는 법석을 정기적으로 봉행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건립불사는 현재 동국대 일산병원 인근부지를 예정지로 낙점하고, 토지교환 등 협의가 진행중이다.

이런 가운데 백만원력결집위원회는 4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건립 등 종단 주요불사 5가지를 포함키로 했다. 백만원력 결집이라는 목표 아래 위원회가 총괄관리를 맡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불사를 관리 · 운영하기 위함이다. 기존 불사별로 구성됐던 위원회 및 전담부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일감 스님은 “원장 스님의 확고한 원력, 불자들의 정성과 동참 덕분에 1년만에 이례적인 성과를 이뤘지만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길게, 그리고 멀리 바라보고 시작한 불사”라며 “한국불교 미래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불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백만원력결집불사추진위는 탁발을 위해 배포하는 ‘발우저금통’의 2차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발우저금통은 기존 저금통이 일회용이라는 단점을 보완해,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개폐가 가능한 형태로 제작, 배포될 예정이다.

해외 스님 분한신고 6월 30일로 연기

조계종이 해외거주 스님에 한해 분한신고 서류마감 기한을 6월3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4월 9일 ‘해외사찰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드리는 글’ 제하의 서한을 해외 각국 지회와 사찰, 포교당 등에 발송했다. 특히 원행 스님은 해당 서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분한신고 서류제출 과정상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해외에 계시는 스님들의 고충을 헤아려 이번 분한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 마감 기간을 6월 30일로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분한신고 마감일은 국내외 관계없이 4월 30일까지다.

원행 스님은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과 대응체계가 다르지만 포교의 뜻을 품고 이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클 것”이라고 위로를 전했다.

송지희 기자



조계사 선재어린이집 원아들과 스님들이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담은 그림을 달고 있다.

“코로나, 우리 함께 이겨내요!”

조계사, 선재어린이집 원아그림 전시회 개막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천진불들과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4월 14일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를 주제로 한 선재어린이집 원아 그림 전시회를 개막했다. 선재어린이집 원아 20여 명과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은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개막식을 열고 테이프 커팅을 비롯해 소원지 달기 등을 진행했다.

이번 전시전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를 예방해요’ ‘엄마 아빠 함께 이겨내요’ 등 아이들이 그린 작품 30여 점이 전시됐다.

테이프 커팅에 이어 스님들은 직접 아이들과 그림을 둘러보고 함께 응원메시지를 작성했으며, 전시회 가운데 설치된 코로나 극복 응원 소원지 오색줄에 함께 소원지를 달고 참여한 아이들에게 스마일배지를 선물했다.

선재어린이집 숲속반 김태희 어린이는 “코로나를 마스크를 쓰면 막을 수 있어요. 마스크가 얼굴을 가리지만 손도 열심히 씻고 하면 돼요”라고 밝게 웃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아이들이 체험, 현장학습 등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그림을 통해서 코로나 극복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며 밝게 자라길 바란다”며 “아이들의 그림을 보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기원한다면 코로나 극복이 성큼 다가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아이들의 마음을 담은 그림은 4월 26일까지 조계사 경내에서 전시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코로나19, 회의도 복지도 바꿨다

포교사단, 4월 14일 전국 임원 화상회의

서울노인福 유튜브 제작강의
종로 · 옥수 등 ‘정서지원’ 실시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불교계 단체와 일선 복지관들이 변화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사단(사단장 방창덕)은 4월 14일 서울 우리함께빌딩에 위치한 포교사단 본부에서 2020년 2차 임원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포교사단은 2010년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포교사단이 구축한 화상회의 시스템은 현재 17명이 동시접속이 가능한 상황이다.

방창덕 포교사단장은 회의에 앞서 “수십명이 모이게 되고, 전국에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 하기에 부득이 하게 화상회의로 2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소통을 통해 포교사단 주요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서는 포교사단 창립20주년 기념법회 및 팔재계 수계법회 실시방안 의건, 백만원력 결집불자 추진의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교사단 기도정진의 건 등 중요사업이 대부분 의결됐다.

회의는 김영석 포교사단 수석부단장의 사업 안내와 함께 차분함 속에서 진행됐으며, 제청과 의견 개진 등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일선 복지관의 복지서비스도 변화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센터장 희유)는 4월 16일 탑골미술관에서 예정된 ‘2020세대기획전-나이 · 차이 · 그 사이’ 전시회 개막전을 유튜브로 공개한다. 개막전 현장에는 ‘감염예방 거리’를 준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입장, 개막 공연과 전시 설명 등 행사진행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현장에 오지 못한 어르신들도 현장을 느낄 수 있도록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연꽃마을 산하 연천노인복지관도 올 4월부터 비대면 영상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어르신 대상 사회교육프로구램 31개 과목을 복지관 직원 및 강사들이 직접 촬영 · 제작한 영상을 매주 1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카카오톡에 업로드한다.



방창덕 사단장이 화상회의서 의결하고 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4월9일부터 일주일 간 80명의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상추키우기 세트를 전달했다. 상추키우기 세트는 혼자 집에서 보낼 시간이 늘어날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를 통해 자기위로와 우울감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노덕현 · 송지희 기자

화엄사 사부대중들 ‘자비의 헌혈’ 동참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스님들이 나섰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4월 10일 덕문 스님을 비롯해 대중 스님들과 종무원, 신도 등 50여 명이 최근 수급난을 겪고 있는 응급 혈액의 해소를 위해 ‘자비의 헌혈’ 행사를 갖고 헌혈 나눔에 동참했다.

덕문 스님은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이 줄어들어 혈액이 많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자비의 헌혈 동참 행사를 마련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만큼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소멸되기를 바라며 부처님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엄사 헌혈행사는 대한적십자 헌혈차가 도착한 후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후까지 이어졌다.헌혈을 기다리는 시간에도 사부대중들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버스에 탑승해 4명씩 헌혈에 동참했다.

자비의 헌혈 이외에도 화엄사는 각 황전에서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구례군을 통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지정기탁금은 군내 복지사각지대 우선대상자 5가구에게 전달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